

1년 앞서 군살 뺀 나주시 공무원 또 줄어야 하나...

정부 지자체 조직개편 방침에 고민

지난해 전국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정원을 감축했던 나주시가 정부의 지자체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또다시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나주시는 지난해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1명의 공무원을 줄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대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주시는 올해 퇴직 등 자연감소로 50여명이 결원될 것으로 예상, 지난

해 11월 전남도에 공채를 요청해 오는 24일 9급 22명, 7급 2명 등 29명을 뽑을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지자체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나주시도 추가로 42명을 감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나주시는 신규 직원을 뽑으면서 기존 조직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나주시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조직에 몸담아 온 직원은 감축하면서 신

규 공무원을 뽑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광재 나주시 인사팀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나주시처럼 충실히 정원을 관리해 왔던 지자체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 확정돼 이미 외부에 공개된 신규 임용을 중단할 수도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자연 감소 등 결원이 발생될 때까지 신규로 뽑은 공무원을 임용 대기시키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어 신규 임용자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우리 축산물 상품권 구매 운동

농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라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지역본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산지 소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실의에 빠진 축산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 축산물 상품권 구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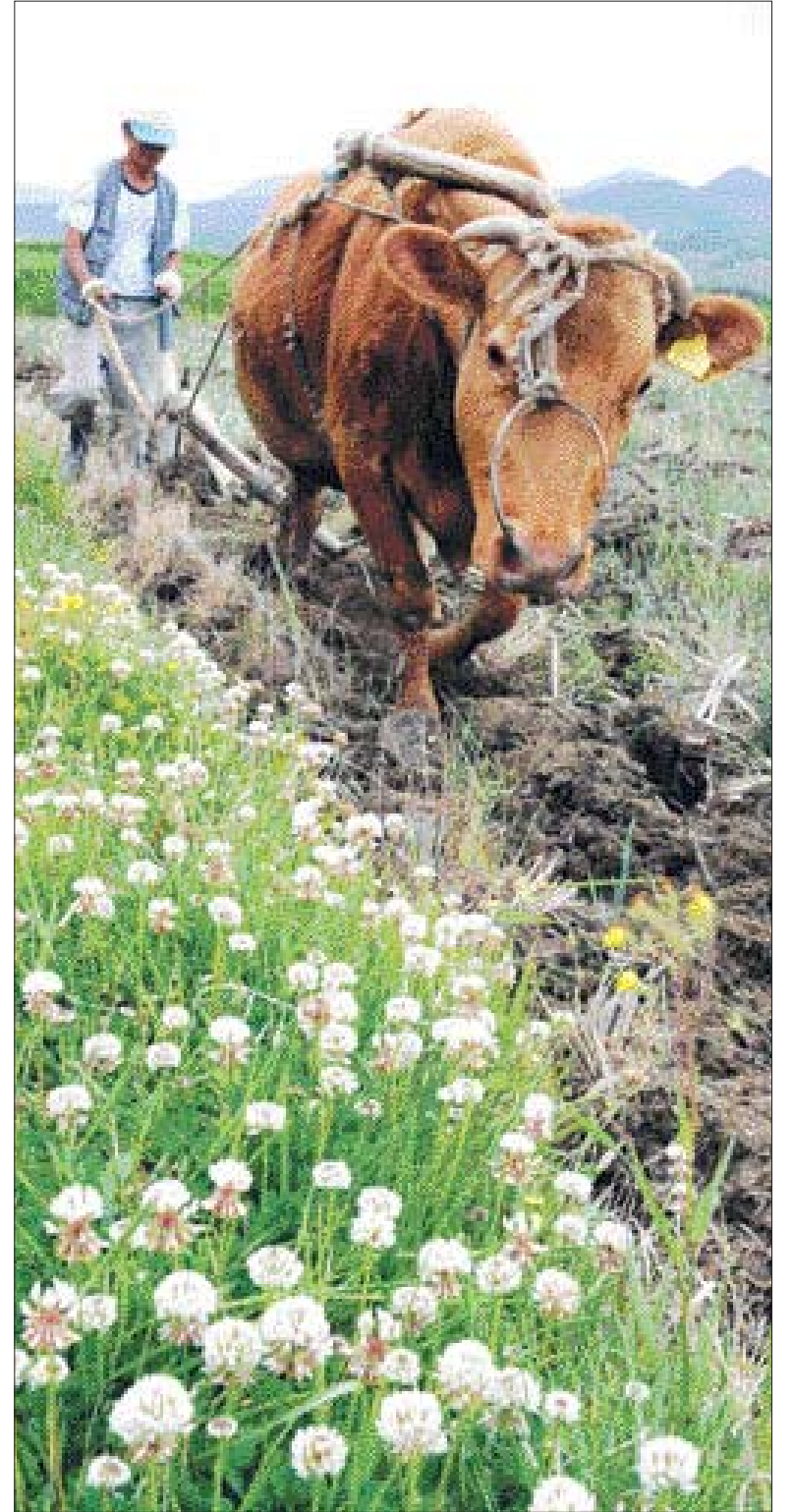
전남지역본부 850여명의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1인당 1~2만원

씩 1천여만원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해 우리 축산물 판촉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18개 지사 및 영안감사업단 등 지사장과 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협상·AI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오병희 고객지원팀장은 "최근 정부의 미국산 수입재개 결정이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이라~" 영농철 소 쟁기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곡성군 경면 칠곡리 들녘에서 한 농부가 모내기를 하기 위해 쟁기질을 하고 있다. /위직기자 jrwi@

원스톱 민원처리... "화순군 행정을 배우자"

전국 지자체들 방문

원스톱 민원처리 등 화순군 행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지자체 및 기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화순을 찾은 기관은 영광군청과 춘천·나주시청, 광산구청, 순창군청, 농촌공사, 광주고등법원 등

전국의 자치단체를 비롯해 30개 기관, 2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화순군청 인·허가 전담 창구 등지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신속하게 일괄 처리되는지를 견학하고 있다.

화순군은 원·스톱(ONE STOP) 민원처리를 위해 개발·건축·환경·위생

등 여러부서를 한 곳에 모은 '인·허가 전담창구'를 개설, 처리 기간을 최대 45% 단축했다.

'술·가구기 사업'의 시범지로 알려진 모후산과 주변 내남천도 산림청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의 산림·하천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소록도에 '대우조선해양 희망마을'



고흥 소록도에 '대우조선해양 희망마을'이 들어선다.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15일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92주년 기념 제 5회 전국 한센 가족의 날'을 맞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대우조선해양 희망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소록도 희망마을은 1만㎡(3천평) 부지에 거주단지 7개동이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준공된다.

한편 이날 한센 가족의 날 행사에는 박병중 고흥 군수와 박정철 병원장을 비롯해 전국의 한센 가족 등 6천여명이 참석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완도경찰 '전화 사기 예방' 간담회



완도경찰서가 지난 13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전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읍·면별 금융기관장을 비롯해 이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완도군은 201개 섬으로 형성돼 있는데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돼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광록 서장은 "주민에게는 항상 경찰이 있다"며 "금융사기는 물론 각종 범죄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신뢰받는 경찰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GS 경영대상' 품질경영부문 광산구 대상 수상



광산구가 'GS(Global Standard) 경영대상' 품질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한국능률협회 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GS 경영대상'은 품질경영 등 5개 테마별 국제표준 경영시스템을 구축·실행하고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기업 및 지자체에 수여된다.

광산구는 원스톱 민원창구, 해피콜 제도, 개방형 직소민원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공장설립 원스톱 처리, 취업박람회, 셋째 이

상 신생아 건강보험 무료 가입, e-광생학습센터 구축, 광산장학회 활성화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는 지난해에도 품질경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갑길 구청장은 "광산구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대기자 wtkee@

가족분노 처리장 준공

해남군, 하루 80t 처리

해남군 가족분노 공공처리장이 준공됐다.

해남군은 15일 해남읍 남외리 1만 9천64㎡ 부지에 사업비 103억 원을 투입해 지은 가족분노 공공처리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처리시설은 하루 80t의 가족분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50t은 정화해 해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30t은 액비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처리시설 규모가 적어 해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광양항 최고 물류허브 賞

유럽 유통물류 대표자회의 "고효율·저비용"

광양항이 유럽 유통물류 대표자회의로부터 '최고 물류허브(Best Logistics Hub)' 상을 수상했다.

15일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 유럽 유통물류 대표자회의의 10주년을 맞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유럽 유통물류 특별시상식'에서 광양항이 최고 물류허브상을 받았다.

유럽 각국의 유통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럽 유통물류 대표자회의는 세계 우수 물류기업, CEO(최고경영

자) 등을 대상으로 최고 물류허브상, 물류혁신상 등 10개 분야를 시상했다.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 관계자는 "광양항이 1998년 개항 이후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현재 총 16개 선석을 가진 연간 548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고효율·저비용의 대형 국제항만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正統日食 미도

확장기업

일식미도(주)는 2008년 5월 16일 현재 1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확장을 위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1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확장을 위한 기업입니다.

정식/수입특선

- 독특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정식 19,000원
- 매일정식 15,000원
- 미도정식 21,000원

추천 50개 기업 (주체는 해당분야 전문기업)

문의: 234-0001

광양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미도

추천 50개 기업

문의: 061-515-3339~40